

# 광주미술인 국내·외 진출 탄력

## 지역작가들 키우기 모임 '컴코리아' 창립 광주시립미술관 해외 홍보마케팅 성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광주지역 작가들의 국내외 진출이 활기를 떨 전망이다.

최근 광주 나인갤러리, 부산 김재선 갤러리 등 유명 갤러리들이 지역작가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해 연합체를 결성한 데 이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외국의 미술관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작가들을 소개하는 홍보 마케팅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립미술관 인사동 분관이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이어서 지역 작가들의 '서울입성'을 밝게 하고 있다.

광주나인갤러리는 서울 고도화랑, 대구 소현 갤러리, 부산 김재선 갤러리와 공동으로 '컴코리아(come korea·회장 양승찬)'를 창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 갤러리들이 전속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서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 4개 갤러리는 정기교류전 형식으로 각 지역 대표 작가전을 개최하고, 해외 아트페어에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컴코리아'는 우선적으로 지역별 2명씩 모두 8명을 선발해 오는 10월 싱가포르 아트페어에 진출한다. 그동안 지역 갤러리들의 국제 아트페어 참가는 많았지만 적잖은 비용 때문에 컬렉터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충분한 전시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싱가포르 아트페어에서는 4개의 갤러리가 경비를 모아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대규모 전시공간을 임대할 예정이다.

'컴코리아' 창립으로 올해 지역작가들의 국내 타지역 순회전도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박수만씨가 서울 고도화랑(5월7일~17일), 대



12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장경화 분관장이 뉴욕 퀸즈 미술관 등 외국 미술관 관계자들이 보내온 광주작가와 관련된 이메일과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 서현갤러리(6월5일~14일), 부산 김재선 갤러리(6월23일~7월2일)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컴코리아'는 또 오는 4월31일~5월6일까지 각 지역별로 2명의 작가를 선정, 서울 인사아트에



'하산연운'

## 남종화의 진수 '목재 허행면' 展

### 의재미술관 4월 30일까지

남종화의 대가 목재 허행면(1906~1966)의 회화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의재미술관(이사장 허달재)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년 기획전으로 '목재 허행면'전을 개최한다.

목재는 50여 년동안 남종화의 전통을 살린 화풍을 통해 남도화단의 뿌리를 형성하는 등 근대 회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 의재 허백련의 동생인 목재는 진도 운립산방에서 미산 허형에게 서예와 사군자를 배웠으며, 조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은 그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전시의 입장료는 일반 2천원, 청소년 1천원. 문의 062-222-3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미술대전에서 입선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산업을 운영했던 허행면의 경영이 표현된 '채광(採礦)'을 비롯해 산, 절벽, 안개, 바위, 소나무 등 아름다운 산수를 세밀하게 그린 대표작 23점이 선보인다.

특히 한국의 사계절 풍광을 재현한 10폭짜리 대형 병풍 작품 '산수십곡대병'